

천년 '세월의 켜' 소리없이 쌓인 장중한 절



천년 암자에 오르다
유영봉 지음
흐름 펴냄
2인3천원

길이 끝났을 것 같은 곳에 또다른 길이 있어 호기심을 따라 가보면 만날 수 있는 곳, 어떻게 이런 곳에 사찰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위치한 곳 등등 바로 이런 곳이 암자가 있는 데다. 특히 천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암자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긴 세월동안, 심산유곡과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자아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율을 경험했고 암자의 숨은 역사를 들으며 새 시선으로 호흡을 고르게 된다. 어쩌면 천년암자는 탐방객들이 오르길 기다리느라 숨 죽여 속절없이 버티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천년암자들이 오르면 그곳서 마주한 석탑에 저절로 볼 부리고 이를 엮는 풀 한포기조차 가슴에 옷듯 담겨 되는 것인지 모른다. 의연히 산중을 지켜온 천년암자는 부락하거나 살포진 모습이 전혀 아니다. 오랜 세월의 켜가 소리 없이 쌓인 만큼 더욱 장중하고 경건해졌기에, 천년암자는 도리어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선정삼매에 든 스님의 고결한 뒷모습처럼 생동감이 넘쳐난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혼탁한 세상을 감내할 수 있는 몽글한 감동과 진실 하나씩을 얻어오기 마련이다. 암자기행의 묘미는 바로 이런데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성한 암자를 둘러보며 지나온 역사를 공유한다면, 우리를 에워싼 풍광은 더욱 의미 있게 유기체로 다가올 것 같다. 바로 오솔길서 만나는 하얗은 들꽃이 하나 까지도 의미를 부여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전국 천년 암자 14곳 기행기 풍광, 역사 거쳐간 고승업적 담아 세밀한 묘사로 현장감 돋보여

이 책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14곳 암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암자로 향하는 길목의 경관, 해당 암자들의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역사, 전설, 설화 그리고 그곳을 거쳐 간 사람들에게 대한 자취와 업적 등을 기행문 형식으로 담았다. 강원도 설악산 봉정암에서 경남 김해 무척산 모은암까지, 온몸으로 역사의 질곡을 버텨 온 암자의 사연들이 현장감 있게 묘사돼 있다. 깊고 울창한 숲을 지켜온 암자들은 세상과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천년 역사의 중심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려 한 시도인 것이다. 특히 감수성 넘치는



깎아지른 절벽에 걸쳐놓은 듯한 전각이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아낸다. 사진은 구례 사성암.

금의 실태를 따라가다 보면, 낯설기만 하던 천년암자들이 오랜 벗처럼 살갑게 다가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경이롭게 한다. 7개 사찰씩 총 2부에 걸쳐 소개하는 이 책에서 우선 1부에서는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을 필두로, 소요산 자재암, 설봉산 영월암, 속리산 상고암, 계룡산 고왕암, 성수산 상이암 등을 이야기 한다. 봉정암에서는 설악산과 백담사 및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자취, 백담계곡의 수려한 경관, 대청봉을, 오세암 편에서는 암자의 창건 설화와 함께 이곳을 거쳐 간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 오세암이 지닌 자연경관과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자재암도 암자의 창건 설화와 함께 원효스님의 성스러운 삶, 암자가 지닌 특유의 멋스러움을 담았다. 영월암 편에서는 역사에 남은 설봉산의 의의와 서

희 장군 이야기 및 창건 설화 등을 소개했고, 고왕암 편에서는 폐망의 역사로 남은 백제의 한을 가슴 아프게 들여다보았다. 2부에는 제법 흥미로운 사찰들을 소개했다. 7개 암자는 오산 사성암, 수청산 백장암, 금오산(전남 여수) 향일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금오산(경북 구미) 약사암, 팔공산 중암암, 무척산 모은암 등이다. 사성암 편에서는 사성암이 지닌 미적 가치와 더불어 각각의 부속 시설들이 지닌 의의와 전설, 설화를 담았다. 백장암 편에서는 실상사의 절불과 장승을 소개하는 한편, 백장암 소재의 오층석탑이 내포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음미했다. 향일암에서는 절의 유래와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편, 백장암 편에서는 삼국유사에 남은 자료를 통해 윤필암의 창건 설화를 살펴보고, 오늘날 비구니 암자로서의 의의를 되짚었다. 김주일 기자

대장경 재조한 고려인 혼 조명

붓다의 십자가 1, 2
김종록 지음 | 김경사 펴냄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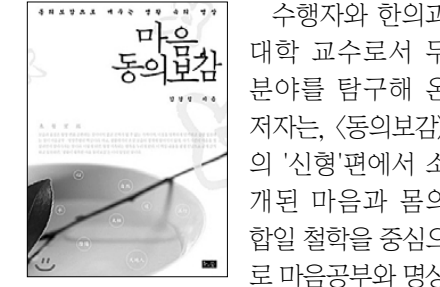


불교와 기독교가 결합한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은 "예수세존은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가 곧 붓다이고 예수는 붓다다"라는 작가의 파격적이고도 열린 종교관에서 출발한다. 십자가는 예수가 처형된 뒤 기독교 상징으로 굳어졌으나, 불가에도 같고리형 십자가(卍)가 존재한다. 불교적 가치관을 넘어 세상 모든 경전을 무관하게 해석 후세에 전하려 했던 고려인의 혼을 재조명한 이 소설의 제목은 그런 상징성을 표출하고 있다. 밖으로 몽골군의 침략

을 받고 안으로 무신정권의 폭압과 타락한 불교계가 전황하던 13세기 고려를 배경으로 진정한 구원의 가치와 이상세계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동과 서를 넘나드는 폭넓은 철학적 사유, 유려하고 명철한 언어 감각, 탄탄한 서사의 힘을 바탕으로 독자를 압도한다. 13세기 몽골 침략기,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층은 백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국난을 극복할 종교 이벤트로 몽골군이 불태워버린 대장경을 재조하는 판각불사가 펼쳐진다. 팔만 대장경을 둘러싼 정치계와 종교계의 추악한 음모, 시대가 금기시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각수장이 김승과 대장도감 승정 지밀의 목숨을 건 추적,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숨 가쁘게 펼쳐진다. 고려 최대 국제 프로젝트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예수'의 정체는 무엇인가?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조조대장경의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경판사업 이면의 감춰진 이야기를 추적하는 역사 추리소설 <붓다의 십자가>는 천년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가설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김주일 기자

동의보감 속에 나타난 마음공부

마음 동의보감
김경철 지음 | 소동 펴냄 | 1만5천원



수행자와 한의과 대학 교수로서 두 분야를 탐구해 온 저자는, <동의보감>에 나타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고 지적한다. 예를들면 △마음공부·명상수행을 하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한다 △마음공부·명상수행을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마음공부·명상수행하는 이는 화를 내지 않는다 등등이다. 저자는 이런 오해를 이 책에서 하나씩 설명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은 마음공부·명상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몰입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함께 기슬된 의학적 건강 양생의 내용은 바쁜 현대인들이 마음과 몸을 두루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 1부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알기 쉽도록 안내한다. 이어 제 2부는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음공부 및 명상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마음공부의 이치와 철학을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동의보감>에 나타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고 지적한다. 예를들면 △마음공부·명상수행을 하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한다 △마음공부·명상수행을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마음공부·명상수행하는 이는 화를 내지 않는다 등등이다. 저자는 이런 오해를 이 책에서 하나씩 설명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은 마음공부·명상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몰입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함께 기슬된 의학적 건강 양생의 내용은 바쁜 현대인들이 마음과 몸을 두루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전속 식물들 의미 살피면 불교적 교리 쉽게 이해돼

마음을 밝히는 붓다의 식물 108가지
민태영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부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꽃과 나무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고유의 역할, 즉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것이 이 책이 주목하는 두 가지 지점이다.

따라서 이 책을 펴낸 목적은, 우선, 경전 속에 나오는 식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밝혀 경전의 의미와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음으로, 경전 속의 식물들을 현대 학문으로 접근하여 바른 식물명과 학명을 밝혀냄으로써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열대식물 자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인도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인도의 전통 사상과 불교간의 연관성을 저자의 전공 분야인 '종교 식물학'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이다. 이 책은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즉 불교의 태동과 완성, 전법과 수행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경전 속의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단순한 식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역사와 교리의 대변자로서의 식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전체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에서는 불교 교리와 부처님의 탄생과 수행, 득도의 과정과 관련된 식물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처님 8대 성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식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득도와 입멸의 과정을 통해 불교 식물이 다소 생소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제 2부에서는 식물들을 성상별·특징별·용도별로 나누어, 경관이 화려한 식물, 향기가 있는 식물, 먹을 수 있는 식물, 아픈 사람들을 살피주는 식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물, 목이 있는 식물군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아울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먼저, 이 책에 소개된 108가지 식물들에 대해 전문 일러스트가 직접 식물의 특징을 살려 세밀하고도 아름다운 칼라로 일일이 그림을 그려 넣어,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들의 심미안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해당 식물에 대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을 지도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해 더욱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배려했다. 다음으로, 식물명 표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사성은 물론 식물 분류학적으로도 충분히 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스크리트명과 불교 경전에서 사용된 한자명, 국명과 학명, 영자명을 최대한 자세히 명기하였다. 국내에서 불교식물이라는 영역은 저자가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체로 붓다가 태어나고 수행하고 전법하고 열반한 성지의 식물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한역 대장경에 수록된 식물

부처님 탄생과 득도관련 식물 정리 식물 등장하는 경전 출처 밝혀

을 그 범위로 하였다. 또한 이번 책에서는 108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불교적 의미에 천착하여 대상 식물을 108가지로 한정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자연 식물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다분히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식물들을 분류해 놓았다. 즉 경전에 나오는 식물들 중의 상당수는 귀중한 열대자원 식물로서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웰빙 식물들로 익히 알려진 것들인데, 이 식물들을 현대인들도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이 책에 수록된 식물이 등장하는 경전의 출처를 일일이 명시해 놓았는데, 이는 독자들이 해당 식물이 등장하는 경전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물 이야기와 함께 하는 또 다른 불교 이야기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누군가의 첫 시도 뒤엔 많은 논의와 연구가 거듭되면서 그 분야는 다듬어지고 성숙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 경전 속에 담긴 식물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그 첫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민태영은 ... 건국대 대학원에서 생명자원 식물공학을 전공했다. 플로리스트로서 원예치료사와 가든플래너,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실내정원과정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식물원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불교식물원연구원 원장, 한국불교식물원연구소 소장, 불교식물원 설립니스트로 활동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8이머, (사)한국자연식물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경전 속 불교식물>이 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국)**
 -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양국)**
 -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 인천 - 롬바이 - 엘로라 / 아진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카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인천
-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양국)**
 -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리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장기일정은 항공사 및 호텔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①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②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③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④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⑤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⑥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⑦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백 증정
- ⑧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⑨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⑩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페라 등) 불포함*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①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②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③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④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영취산)이 있는 곳.
- ⑤ 바이살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병밀(猿王奉鬘)정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⑥ 쿠시나카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⑦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릉뫼이 있는 곳.
- ⑧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